

막으려 예산국회 가시밭길 예고

민주 “4대강 70% 깎아 서민복지에 쓰겠다”

검·경 특수활동비 등도 여야 격돌 정국경색...내달 2일 시한 낼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닷을 올릴 예정이지만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는 15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 데 이어 17일, 19일, 22일 3일간 김황식 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국회 상임위원 예비심사가 선행된 후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해 상임위의 파행사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병행심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23~24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5~26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7~28일 계수조정소위 자료작성 ▲29~30일과 12월1일 계수조정소위 심사·의결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309조6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여야는 일단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통과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시한인 12월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기는 일정을 세웠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의

원은 14일 “미래성장 대비와 서민회망예산이 올해의 양대 기조”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신성장동력 등 미래형 예산 확보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복지예산을 통해 정부의 친서민 국정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연말에 공정의 60%가 끝나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주요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하는 만큼 9조500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사업 예산 6조7000억원을 비롯해 총 11조3000억원(수공사 예비 제외시 7조5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강 예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을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수공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000억

원의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준설 예산 6956억원 중 낙동강에서 유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과 황강, 남강 합류 지점, 물흐름에 문제가 있는 영산강 일부 구간에 들어가는 8000억원은 인정키로 했다.

또 전액 삭감 대상 예산은 ▲통일세 연구용역 사업 100억원 ▲4대강 송 등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채무 감축 6000억원을 포함, 7조5000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증액 대상은 지역 균형발전 1조3000억원, 일자리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7600억원, 노인복지 6000억원, 반값등록금 5200억원, 중소기업 5000억원 등

이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의 ‘심장부’인 4대강 사업에서 격돌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권 수사, ‘대포폰 의혹’ 제수사,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문제로 총동원 경우, 예산안까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정국경색이 심화될 경우 연말 임시국회 소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충남도 당직자들과 천안 태조산 등산에 앞서 결의대회를 갖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65) 여사가 석방 이틀째인 14일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사에서 7년 만에 대중연설을 재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인권상 수상 수치여사 7년만에 가택연금서 석방

한국 등 국제사회 환영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제5회 광주인권상’(2004년)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65)가 13일 7년만에 석방됐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수치 여사 자택 주변의 바리케이트를 철거한 뒤 수치 여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했다. 수치 여사의 석방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7일 20년만에 총선을 실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치 여사는 이날 오후 6시(현지 시각)께 지지자 5000여명의 환영을 받으며 옛 수도인 양곤 시내에 있는 자택 밖으로 나온 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행복하다. 국민 전체가 화합해서 노력해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

다. 한국 정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군사정권은 (수감 중인)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독립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로 지난 1989년 첫 가택연금 조치를 당한 수치 여사는 1995년 풀려난 뒤 비폭력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고 미얀마 군정은 2000년 그를 다시 가택연금하고 매년 이를 연장, 최근 21년동안 15년간가량을 구금상태에서 지내 왔다.

미얀마의 야당 민족민주연맹(NLD)의 지도자인 수치 여사는 199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나 군정은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 /이종행기자 galee@연합뉴스

예산 깎든지 말든지...4대강 보 공정률 60% 돌파 전체 공정은 35%

낙동강 갈등속 공사 계획보다 빨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과 시민·종교단체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고 대형사업권 등을 놓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공사 자체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1월22일 공식적으로 첫 삽을 뜬 지 1년도 채 안 돼(보) 건설공사의 공정률이 60%를 돌파, 올해 목표를 한 달 보름 이상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11일 기준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평균 35.5%로, 애초 계획(34.5%)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수계별 공정률은 한강 38.7%, 낙동강 33.6%, 금강 42.7%, 영산강 34.5%다. 8억의 물을 가두게 될 4대강 16개 보의 평균 공정률은 60.2%를 기록했다.

수계 및 보별로는 ▲한강 49.6% (이포보 49.9%, 여주보 57.1%, 강천보 40.1%), ▲낙동강 60.3% (함안보 51.4%, 합천보 61.5%, 달성보 54.3%, 강정보 54.9%, 칠곡보 66.7%, 구미보 66.9%, 낙단보 78.2%, 상주보 59.9%), ▲금강 62.2% (부여보 52.7%, 금강보 75.8%, 금남보 76.2%), ▲영산강 70.9% (죽산보 63.3%, 승촌보 76.3%)다.

경남, 충남·북 등 일부 지자체가 보 건설과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낙동강과 금강의 공정률이 평균

이상을 보이는 것은 이들 핵심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정부가 직접 맡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설은 5억2110만8천㎡의 계획량 가운데 2억1924만5천㎡(42.1%)를 퍼내 목표 대비 6% 이상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보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준설 공정률도 애초 계획대로 60%까지 끌어올린 뒤 내년 6월 이전 구조물과 수문 설치를 모두 끝내고 시운전 및 물 가두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조만간 하천

사업 92개 공구 가운데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못한 낙동강 47공구 등 13개 공사 구간에 대한 경남도의 대행사업권을 되돌려받아 직접 공사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경남도는 사업권을 회수할 경우 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야당도 정부가 요청한 4대강 사업 예산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정치권 내에서의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수시2차 신입생 모집
2010.11.04~12.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정수
각대학원원시정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 석·박사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교육대학원 · 보건경영대학원

원시정수 11월 19일(금) 면접 11월 26일(금)

남부대학교 062)970-0040~7

2010최대이슈! 숲속을 달리는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배타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항공 제주도 3박4일 여행 특가!!”

2명이상 매일 출발!! 2011년 2월 28일까지 (비수기)

출발일 ▶ 11월 29일, 30일 / 12월 6일, 7일, 13일, 14일 ...

상품01 → 올레길+관광열차+新제주 관광명소탐방

광주왕복항공 3박4일 ₩179,000~

상품02 → 관광열차+마라도관광+우도 유람선

광주왕복항공 3박4일 ₩199,000~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일반호텔(4~6인실), 관광차량, 식사,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1인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

※ 관광호텔 2인1실 이용시 30,000추가(1인), ※ 특급호텔가능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목포, 장흥선박착석 보유 ※ 제주도 전지역 리조트/호텔호남총판 대리점 ※ 제주도 전지역 골프장 호남 총판 대리점 ※ 2박3일 패키지, 단체여행, 렌트카 자유여행, 관광지 할인쿠폰 판매가능

협찬 : 아시아나항공 KOREAN AIR 예약센터 투어클럽&스피트골프 062)382-8201